

2023

August

교회 표어: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주빌리

소식지

JUBILEE NEWS LETTER



Table of Contents

- 1 **담임목사 인사말****
- 2 **초대 담임목사 인터뷰 : 김병서 목사****
- 6 **한반도 종전 선언 및 평화 협정 촉구****
- 8 **사역자소개****
- 9 **선교지소식****
- 11 **교회소식****
- 12 **8월-9월 행사안내****

담임목사 인사말



담임목사 김정호

기온이 높고 굉장히 습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요새 며칠은 좀 선선해져서 다행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인지 세계 곳곳에서 무더위와 폭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소식이 매일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도 목회 환경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며 지난 2천 년 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복음 사역의 본질에 충실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고 섬기는 “믿음의 친구들” 사역을 다시 활기차게 펼쳐보려고 합니다. 중풍 병자를 예수님께 옮겨와서 구원받고 치유되게 했던 4명의 친구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 사회와 개인의 중풍병처럼 구원과 치유가 필요한 곳에 쓰임 받고자 하는 사역입니다. 개인도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야 하는 분들이 있고 이 사회 제도나 단체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치고 새롭게 해야 할 측면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은 개인과 공동체를 진단해서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을 4명이 팀을 이루어 전도, 치유,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매일 주어진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말씀 공부, 묵상, 그리고 실천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후러싱제일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일학교, 청년부, EM, 장년 등 교회 전체가 한 가지 목표와 실천 방안을 가지고 기도하며 협력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실도 전체적으로 이 사역을 위해 함께 나설 것입니다.

50주년 희년을 향해 가는 우리 교회의 발걸음이 우리 자신과 이 지역의 중풍병과 같은 현실에 자유와 해방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역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올해 연세가 90이 되었죠? 후러싱제일교회 한인회중이 2년 있으면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초대 목사님으로서 교인들께 주실 말씀 혹은 젊은 목회자나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후러싱제일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김 정호 목사님 잘 받들고 섬기고 존경하라고 당부하 고 싶습니다. 젊은 분들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한 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연 극으로 치면 담임목사는 감독이고 장로, 권사, 집 사는 출연한 배우와 같습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지요. 담임목 사가 장로, 권사, 집사님들의 달란트에 따라 맞 는 자리에 잘 인도하고 교인들은 그 역할을 충실 히 감당해 낼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됩 니다.



2년 있으면 50살인데 철이 들고도 남은 나이가니까 철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다시 말하면 후러싱제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로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역 봉사, 선교, 전도 등 많은 분야에서 담임목사가 잘 할당하고 교인들은 불평하기보다 묵묵히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러싱제일교회에 있을 때 내가 맡긴 사명 잘 감당했나?’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네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잘 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셔서 창립 50주년 때 교회에 오셔서 교인들 함께 뵙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에 팬데믹이 한창 심했을 때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과 은퇴 목사들 교단에서라도 마스크를 좀 보내줄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CVS나 다른 데를 가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뉴저지 상록회 회장님이 뉴저지연합교회 장로님이라서 연락했더니 마스크 4개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버티고 있었는데 후러싱제일교회와 김정호 목사님이 마스크를 보내줬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디 가면 그 얘기를 하곤 합니다. 창립 45주년 때에는 기념품 수건을 2개 보내주셔서 그것도 잘 받았습니 다. 감사하 다는 얘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

나이 들고 뒷방에 나 앉으면 전임 목사나 은퇴 목사들 기억해 주는 후임 목사나 교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잊힌 존재들이 됩니다. 그런데 후러싱제일교회와 김 목사는 이렇게 기억하고 찾아와 주고 때마다 귀한 것들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농담으로 ‘김 목사는 평안도 사람이라 다르구나. 평안도 사람은 형님을 잘 모시지’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하하하)

1975년 교회 창립하실 때 교회 상황이 어땠는지, 어떻게 창립하시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뉴욕한인교회에서 5년 목회하고 1975년 6월에 플러싱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미국 회중이었습니다. 제가 후러싱제일교회 62대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제가 올 때, 뉴욕한인교회 교인 13분이 맨하탄에서 플러싱으로 같이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해 6월 22일 영어 예배에서 이분들을 위한 입교식을 했습니다. 한어 예배는 이분들 위주로 시작되었습니다. 후러싱제일교회로 옮겨온 후부터 한어 예배에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영어 회중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9월 21일 오후 2시에 처음으로 한국어 예배를 본당에서 드렸습니다. 영어 회중은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한어 회중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후러싱한인교회”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은 1975년 10월 19일이었습니다.



1975년 후러싱제일교회 한어회중 창립 예배 장면
미국 성가대와 한인 성가대 합동 찬양

한인 회중 초창기에는 새로 등록하는 교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인 각자가 찬양대원, 안내원, 헌금위원, 베이비시터, 식사 봉사 등 일인다역을 감당했습니다. 새 교인이 오면 가족 이상으로 반갑게 맞았습니다.

한인 회중의 신앙 열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초기에 이미 어린이 교회학교에서 성경과 태권도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곧 청년회 조직, 예배 전 성경공부반, 초기 이민자를 위한 남녀 영어반도 신설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내 일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지역사회 일에도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community board에 들어가서 활동했습니다. 또한 공립학교 상담사로 학생들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학교에서 봉사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 Queens Hospital에서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1주일에 두 차례씩 방문해서 봉사했습니다. Queens Hospital은 구세군에서 운영하던 병원이었습니다.

플러싱 라이온스 클럽에서 한국의 심장이 약한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책임자가 함께해달라고 요청해서 라이온스 클럽에서도 활동했죠. 롱 아일랜드 St. Francis Hospital에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했는데 제가 가서 통역과 기타 일들을 도왔고 제 아내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주곤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도 역시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봉사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굉장히 분주하기는 했지만, 그때까지 한인 회중이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생애 중요한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1976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민이 되고 나니 이북에 있는 어머니를 한번 꼭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신 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캐나다에서 활동하던 전총림씨가 이북과 관계를 많이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총림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어머니가 평양 동대문에 살았는데 아직 생존해 계시는지 알고 싶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고맙게도 연락이 왔는데 우리 어머니 사진도 같이 왔어요. 어머니가 외삼촌의 아들과 함께 지내고 계셨습니다. 외삼촌도 월남해서 남쪽에 살았기 때문에 남겨진 외삼촌 아들과 제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께서 살아 계신 것을 확인했으니 가서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양을 다녀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 교회에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영사관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김병서 목사가 이북에 간다는 말이요. 영사관에서 한번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중앙정보부에서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는 1980년 전두환 정권 때였지요. 그분이 “목사님 이북에 가서 잘 보고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북에 가서 30년 만에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더니 어머니는 안 계시고 사촌 동생 셋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면 쓰러지실까봐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강도 희천시에 살고 계셨습니다. 평양에서 북쪽으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죠. 도착해 보니 허름한 아파트 방 한 칸에 10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40이던 어머니가 70이 되셨습니다. 미국에서 아들이 왔다는 얘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다들 나와서 구경을 하는데 한 200명 정도는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호기심에 나와 있었던 거죠.

평양에 다녀왔더니 교회에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거절했죠. 내가 외아들이인데 어머니 이북에 살아 계신 것 알고 보고 온 것 외에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교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미국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한 가지 여담을 얘기하자면 제가 후러싱제일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영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녹음해 놓고 들어보면 제가 들어도 그렇게 썩 잘하는 영어가 아니었어요. 미국교회 교인분들 참 감사하게도 누구 하나 영어 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인 중에 제가 평안도 영어를 한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평안도 액센트가 영어에도 나온다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 영어로 설교하는 것 미국 교회분들보다 한국 분들 앞에서 하는 게 더 부담됩니다. 만약 한인 회중에 외국 분이 오셔서 어눌한 한국말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설교도 은혜가 안된다고 말씀들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미국분들 제 영어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 한 분도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런 건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후러싱제일교회 초창기 교인 중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어 회중 초창기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에는 1인 3역 들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한편으로는 인정 욕구를 원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봉사와 사역 알아주지 않으면 금세 실망하거나 교회를 떠나곤 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이 박신명 장로님이십니다.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시고 목회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또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했습니다. 교인들 생활이 대체로 어렵던 시절이라 저도 한인 회중에게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감사의 표시로 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혹시 사모님께서도 기억나는 것 있으니까?

초창기에 저는 유치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밴을 운전하고 아이들을 픽업해서 제가 교회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치원에 다녔던 아이들이 지금 60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교회 찬양대, 한인교회 성가대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교회가 생존을 위해서 즉 살아남기 위해서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미국 교회 회중 중에 '1년에 두 번씩 음악회를 하면 어떻겠는가?'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의해서 허락했습니다.



유대인 등 다인종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딱 차도록 1년에 2번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 중 하나였죠. 그 음악회를 통해서 뉴욕에 계신 많은 분이 후러싱제일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음악회 기사가 뉴욕타임즈에도 나왔었습니다.

김병서 목사님이 봉사를 좋아해서 지역에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회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였습니까?

영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하하하) 또 내가 평안도 성격이 있어서 조금 거친 성격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옳지 못한 거 보면 참지 못하고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를 사기도 했었죠.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지만 젊어서는 용기 있게 많은 일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면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러싱제일교회 목회할 때 미국교회와 한어 회중 등 2교회 하다 보니 한 교회도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가능하면 목회는 한 교회만 집중해서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종전 선언 및 평화 협정 촉구

한국전 휴전 70주년을 맞아 종전 선언과 평화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와 컨퍼런스(Korea Peace Action)가 지난 7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모여서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에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꿀 것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펼쳤습니다.

전국적인 행사로 열린 이번 집회는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평화위원회를 비롯해 평화 활동가 연합 및 인도적 지원 단체들, 미 예비군 조직과 전쟁 포로 단체들, 연합감리교회의 세계 선교부와 사회부 등 다양한 종교단체, 그리고 이산가족 단체 등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다양한 조직과 그룹들이 참여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는 뜨거운 여름 날씨였지만 고국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외국 분도 동참해서 70년 동안 전쟁이 종식되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현재 33명의 하원의원의 지지를 받는 한반도 평화 법안(H.R. 1369)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평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연설한 장위현 목사(뉴잉글랜드연회 감리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위현 목사는 그의 아버지가 6.25 때 월남하면서 부친과 누이와 헤어진 채 살면서 한 번도 상봉하지 못했고 소식도 듣지 못한 이산가족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2007년 작고한 부친이 새해만 되면 북에 남겨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 짓던 아버지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바로 가족을 볼 수 있는 권리라고 하면서 천만 이산가족들이 속히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라파예트 광장(Lafayette Square)에서 2시간 정도의 집회를 마친 일행은 링컨 기념관까지 행진하며 “전쟁 종식 및 평화 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워싱턴DC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안전하고 질서 있게 행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화 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워싱턴DC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안전하고 질서 있게 행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월부터 사역하게 된 이문혁 목사입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인 김영은 사모와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영빈(9살) 둘째는 이예빈(5살) 셋째는 이다빈(10개월)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한 것은 초등학교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이후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섬기던 중에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후에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서울 감리교 신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사역하기로는 저의 모교회인 천호제일감리교회에서 7년, 그리고 강남성은교회에서 9년 사역을 하였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아직은 얼떨떨한 느낌이 많습니다. 하지만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착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러싱제일교회에서의 사역은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도와 목양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미국 생활과 미국 목회가 처음이기에 겸손히 배우며 최선을 다하여 담임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고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쿠바를 쓰시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Cuba para Cristo! 쿠바를 그리스도께로!” 즉, 쿠바 국내 선교이고, 또 하나는 “¡iÚltimo Corredero de la Gran Comisión del Señor- Iglesia Cubana! 주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주자-쿠바교회!” 즉, 세계선교를 완성하는 마지막 주자 역할의 쿠바교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1. ¡Cuba para Cristo! 쿠바를 그리스도께로! - 국내선교

2003년 쿠바선교사관학교(DAAM신학교)를 시작하면서 국내 선교의 고삐를 틀어쥐었습니다. DAAM은 선교사양성신학교이지만 2018년까지 2,3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국내에 셀 수 없는 수많은 가정교회(CASA CULTO)를 개척하며 쿠바 국내 선교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자녀들(PK) 4,000여 명이 선교사로 준비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GMI 쿠바신학교(1년 합숙 훈련: LA 은혜교회 설립)가 2017년에 설립되어 3기까지 215명이 졸업하여 대부분이 목회하고 있고 4기 80명은 팬데믹으로 2개월 수업하고 휴강하였다가 2022년 2월에 이어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GMI신학교 5기 입학 경쟁률은 4:1이 넘습니다.

현재 쿠바 선교는 준비된 현지 쿠바 리더들에 의하여 한인 없이 얼마든지 다양한 전도와 양육 사역이 진행되어 더 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 중 하나가 ”생명의 면류관” (Corona de la Vida) 프로젝트로 펜데믹 가운데 2020년 5월부터 모두 8기 70 교회가 그림 일대일 전도 양육 교재(저자: 송상철 목사, 새한장로교회)로 아바나를 비롯한 4개 주를 전도하여 2,700명이 회심하였고 그중 2,300명이 제자훈련 과정까지 이수하였고 약 2,000가정을 방문하였는데 단 한 가정도 문을 닫은 집(거절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쿠바 국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외국 선교사 없이 현지 사역자(제자) 주도의 전도와 선교 시대가 시작되어서, 현지 리더들은 이제 도움만 받는 대상이 아니라 Mission Partners(선교동역자)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2. ¡Último Corredor de la Gran Comisión del Señor- Iglesia Cubana!

쿠바 피델 카스트로는 30년 전부터 공산국가 쿠바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하여 제3세계 청년들을 초청하여 5~6년 동안 쿠바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의대생이(6년) 가장 많고 법대, 공대, 교육대 등에(5년) 수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유학생의 60%가 크리스천으로 주님이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사역입니다.

2019년 여름방학 동안에 세 번의 선교사 헌신(발굴)을 위한 캠프(2박3일)를 통하여 600명의 아프리카 전문인 선교사(Professional Missionary)가 선교사로 헌신하였는데 95%가 의대생입니다. 벅찬 꿈과 함께 2020년을 시작했는데 불청객 코로나-19로 쿠바가 완전 섯다운이 되어 2020년과 2021년 8월에 쿠바에서 졸업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들과 모든 접촉이 불허되어 다 잃어버린 것처럼 떠나갔습니다. 쿠바선교사인 저희도 2020년 3월에 쿠바를 떠나 21개월 만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복음은 한순간도 매이지 않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쿠바에서 수업 중인 학생들과 졸업하고 귀국한 학생들을 찾는 일을 시작하여 이미 졸업하고 아프리카로 돌아간 전문인 선교사들이 연결되었고 동시에 아직 쿠바에 남아서 수업하고 있는 예비 전문인 선교사들과 다시 접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졸업하여 귀국한 나라 중에는 콩고공화국과 앙골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콩고 연락책은 Noé 노아 목사로 쿠바 의대 위생 전염병학을 공부하였고 2021년 졸업하였습니다. 2021년 콩고 출신 졸업생은 430명으로 콩고정부에서 지난 8월 전세 비행기 2대를 보내 한 번에 귀국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아 목사는 브라자빌 수도에 거주하는 의사 전문인 선교사 50여 명과 관계를 하며 2022년 저희가 콩고를 방문할 때까지 소통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앙골라 연락책은 Menezes 메네세스 목사로 쿠바 아바나 공대 자동 시스템과를 2020년 졸업하였고 앙골라 국립공대 교수로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쿠바에서 졸업한 분들 중 귀국한 60여 명의 의사 전문인 선교사들을 연결하여 역시 2022년 저희가 콩고를 방문할 때 구체적인 전략을 계획하고 진행하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위의 두 목사님은 쿠바에 있을 때부터 저희와 밀접하게 협력하던 분들로 쿠바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해 온 준비된 리더들입니다.

교회소식 (7월 교회행사)

중고등부 비전센터 이전

지난 7월 2일부터 중고등부가 비전센터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아이들과 비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청소하며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연합기도회 참가

7월 21일 그레잇넥 한인교회 중고등부와 함께 연합 기도회를 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EM 수련회

EM은 지난 7월 14일과 15일에 걸쳐 교회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성령께서는 누구이시며 어떻게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알파 코스의 연장선에서 1박 2일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M 회원들은 예배와 기도, 그리고 공동체로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8월~9월 행사 안내

은혜의 해 선포, 희년 부흥회

일시: 2023년 9월 25일(월) - 27일(수) 저녁 7시

강사: 25일(월): 김주찬 목사(탈북인 주는평화교회) '북한 지하교회에서 만난 하나님'

26일(화): 노지훈 목사(움직이는교회) '세상 속의 빛과 소금'

27일(수): 이후정 목사(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희년의 영성'

“하나님의 은혜의 해 선포”를 주제로 하는 희년 부흥회가 9월 25일부터 3일간 개최됩니다. 2025년 한어 회중 50주년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4:18-19 말씀에 근거한 '희년교회'를 목표로 모든 사역과 목회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고된 이민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고,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도록 부어지기 기대하며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김주찬 목사는 탈북인으로서 2018년 주는평화교회를 개척한 뒤 위로재단을 세워 탈북인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 이후 남북한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단의 회복과 아픔의 치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 통일 교회 모델을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교회 노지훈 목사는 넓고 허름한 공간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며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현재 전통차집과 문화센터 등 지역과 공감하는 소통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이후정 목사는 “희년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합당한 신앙과 영성은 무엇인지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이번 부흥회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의: 목회실 혹은 신기성 전도사 973-908-3051)

여름 성경 학교 (VBS)

금년 여름성경학교가 오는 8월 25일부터 열립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 주실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유초등부를 향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8월 25~27(9am~4pm)
주제: Stella-Shine Jesus Light



Backpack Blessing

금년 Backpack Blessing은 9월 3일 3부 예배 때 실시합니다. 새 학년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 SERVICES

주일 SUNDAY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00 am @본당
4부(영어) 1:00 pm @본당
5부 2:30 pm @본당

영어예배 ENGLISH SERVICES

SUN 1 pm @MAIN CTR

주중예배 WEEKLY SERVICES

새벽 6am 본당/온라인
수요일 8pm 본당/온라인

교육부 예배 및 모임 SUNDAY SCHOOL & YOUTH

주일 SUNDAY SCHOOL (ED BLDG)

| | |
|------------|-------|
| 영아부(만2세미만) | 11 am |
| 유아부(만3세미만) | 11 am |
| 유치부(만3-4세) | 11 am |
| 유초등(K-5) | 11 am |

청소년 YOUTH (ED BLDG)

| | |
|------------|-------|
| 중고등부(6-12) | 11 am |
|------------|-------|

교회 부설 학교 FUMC ACADEMY

K-Culture School 9:30 am (Sat)

생방송(Live)

<https://www.fumc.net/web/live/>

새벽예배와 주일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상담실 문의: 718-939-8599

설교방송 TV/RADIO

주일 10 am
Voice of NY 라디오 코리아 FM 87.7
(앱 FM 877)

주일 9 am

CTS (Cable TV 1156, DIRECTV 2092)

월요일 7:10 pm

CGNTV (TWC 1296/1492, DTV 63.2)

토요일

CTS (Cable TV 1156, DIRECTV 2092)

- 9 pm

cbsn (www.cbsnewyork.net)

- 9am / 7pm

발행인: 김정호
편집인: 문서출판부

38-24 149th Street, Flushing, NY
11354

Tel. (718) 939-8599

Email: fumc@fumc.net

홈페이지: www.fumc.net